

Daily Auto Check

2022. 11. 2 (Wed)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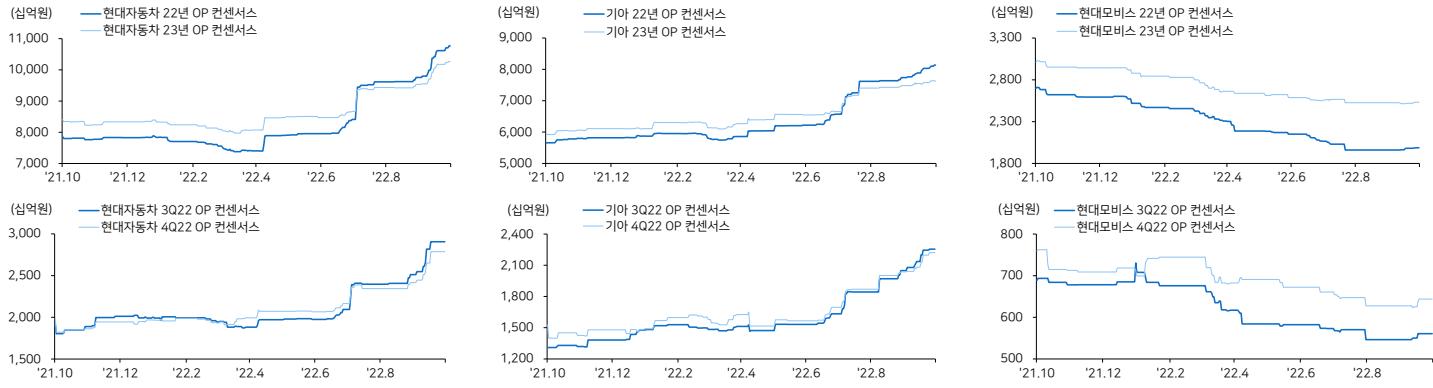
RA 장재혁

02.6454-4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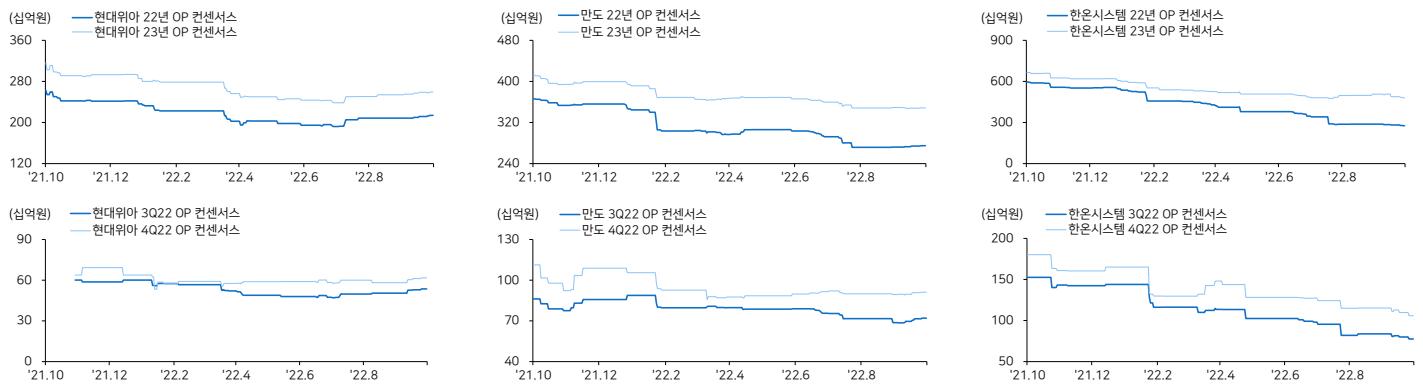
jaehyeok.jang@meritz.co.kr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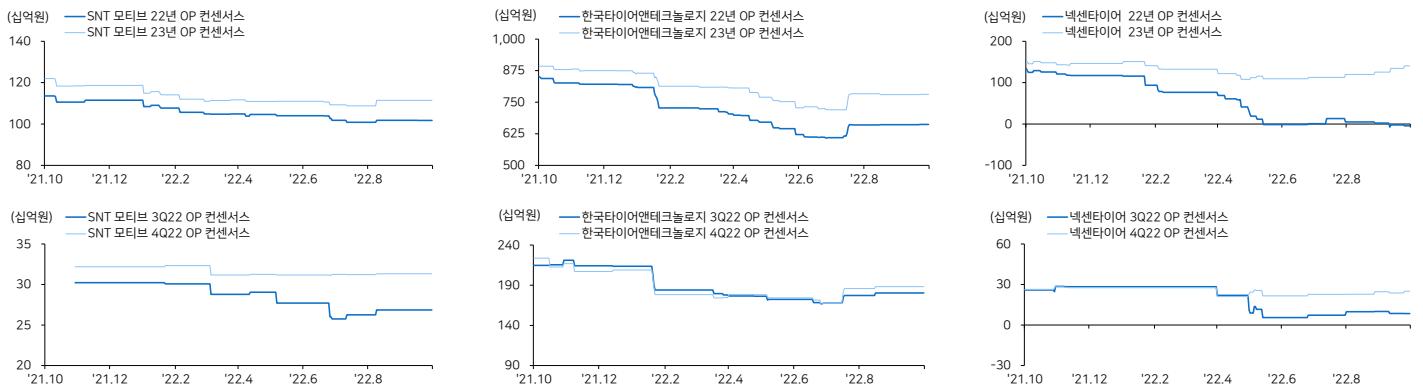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美 신차 가격도 꺾었다... "앞으로 더 떨어질 것" (이데일리)

차량용 반도체 부족과 수요 증가 등으로 크게 뛰었던 미국 신차 가격이 진정세를 보이는 중. 미국 신차 평균 가격은 지난 7월 46,173달러 역대 최고지 기록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해 지난 10월은 45,600달러를 기록.

<https://bit.ly/3FywTzI>

전기차 윤인 vs 앙다리' 둘중 하나는 혹독한 대가 치른다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전기차로 풀이할 것인가'를 놓고선 기류가 얹길림. 메르세데스-벤츠와 현대차, VW는 전기차 대세론을 형성하는 반면, 도요타와 BMW는 전기차 전환에 지원될 것이라며 내연기관차의 기술·생산주도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

<https://bit.ly/3sKKonQ>

Comma AI founder George Hotz is stepping down from the company (Teslarati)

17세 iPhone HW를 세계 최초로 해킹하고, 2015년 차량용 애플리케이션 마켓 자율주행 HW/SW를 제조/판매하는 기업 Comma.ai를 설립한 조지 하츠가 회사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https://bit.ly/3sO5SAK>

Toyota cuts output target amid chip crunch as profit tumbles 25% (Reuters)

토요타는 3022 5,627억엔 영업이익을 발표, 컨서스 7,722억엔을 약 25% 하회. 이번 회계연도의 생산목표를 970만대에서 920만대로 축소하였으며, 차량용반도체 공급부족이 언제 해소될지 모른다고 언급.

<https://reut.rs/3DpQiQm>

EU, 전기차 보조금 놓고 美와 차별화 협상 돌입 (헤럴드경제)

EU와 미국이 구성한 전기차 보조금 분쟁 관련 태스크포스(TF)가 이번주 협상에 들어감. 다음달 열리는 미·EU 무역기술협의회(TTC)를 앞둔 상황. 한국 정부 역시 EU와 비슷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척사항에 주목.

<https://bit.ly/3Wd0dkG>

국내 완성차 5가지 4개월 연속 판매 증가... 내수·수출 모두 늘어 (세계일보)

1일 국내 완성차 5가지사가 발표한 10월 실적에 따르면 반조립 제품(CKD)을 포함해 모두 672,333대가 판매돼 작년 10월보다 15.5% 증가한 것으로 집계. 내수는 120,026대로 12.8% 증가, 수출은 552,307대로 16.2% 증가함.

<https://bit.ly/3sSzKE>

Toyota sales rebound again; Honda slips; Hyundai, Kia advance 3rd straight month (Automotive News)

지난 10월 미국 시장에서 토요타는 yoy +28%, 현대차 +7%, 기아는 +12% 늘어난 판매량을 기록. 미국 산업 전반에 걸친 재고의 절진적 증가로 연말 및 휴가 시즌 더 경쟁적이고 인센티브를 상승시키는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의견.

<https://bit.ly/3WoA1DE>

VW Offloads German Car-Sharing Business for EV Sales Boost (Bloomberg)

폴스바겐은 차량공유사업 WeShare를 독일 스타트업 Miles Mobility에 매각. 이번 결정은 2022년 이후에도 WeShare의 사업이 수익성을 개선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언급.

<https://bloom.bg/3fxijc>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